

지하철 건설·장록습지 보존...광주 민관협치 성공 사례 쌓인다

광주형일자리·대구 코로나환자 병상연대·무등산 난개발 방지 등 시, 협의회 구성 협치체계 강화...찬반 대립 장기 표류 현안 해결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관협치 명분 사업 지연·지역 내 갈등 유발도

민선 7기 들어 길게는 10년 넘게 찬반으로 꼬여 있던 각종 광주지역 현안들이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협치 행진으로 해결되면서 민선 시대 민주적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구성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직사회 등 일부에선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이미 수년간 공직 내부의 거듭된 검토를 거쳐 결정한 일부 사업이 민관협치라는 명분 아래 지연되면서 과도한 갈등 유발, 사업비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들어 완벽한 제도 정착을 위해선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현안, 발전방향과 관련한 의제 합의를 위해 민관협치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자치 소통, 환경, 복지, 사회경제, 자치·마을공동체, 여성, 청년, 청소년, 문화, 인권 교육 등 10개 분야로 구성한다. 협의회 구성은 찬반 대립으로 장기 표류한 현안들을 공론화 방식으로 해결한 성과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 도시철도 2호선 건립 사업을 공론화를 거쳐 추진 결정하면서 16년 논란을 종식했다. 이후 광주형 일자리, 코로나19 병상 연대, 장록습지 보존, 무등산 난개발 방지 등 과정에

서도 민관의 논의는 빠지지 않는 의사 결정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냈다.

특히 국내 최초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는 각계 대표, 시민이 참여한 노사민정협의회가 참여 주체별로 얽힌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병상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할 당시에는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5·18단체 등이 나서 대구 환자를 광주에서 치료하겠다는 병상 연대를 제안해 반향을 일으켰다.

개발과 보호가 맞섰던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내 최초 도심 국가습지 지정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2019년 지역주민, 시·구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실무위원회를 꾸려 총 19차례의 토론·간담회 등을 거친 뒤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추진 의사를 확인했고, 지난해 12월 최종 지정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시는 또 최근엔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의 개발과 관련해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학 협의회를 통해 '공유화'란 결론을 도출해냈다.

현재는 아파트를 최소한으로 건립하는 대신 명품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시가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매입하기로 한 동구 지산동 신양파크호텔이 최근 영업을 종료하고, 새로운 개발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과 근대 산업문화 유산인 전남·일신 방직 일대 개발 사업 등이 민관협치 방식으로 논의·진행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안마다 위원회, 협의회가 등장하는 상황에 기계적인 협치는 행정의 책임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범위가 넓은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는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갑자기 협상 조정위원회를 구성

하고 다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 고분양가와 80평형대 대형 평수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게 재협상의 이유다.

하지만 이미 광주시 해당 부서에서 2년여 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 결정한 내용인데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논란이 된 내용들을 검토·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오는 4월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던 해

당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땅값 추가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행정이 일관성을 상실하는 모습을 반복할 경우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관협치 방식의 적용에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코로나 이후 광주관광 활성화 나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보상금 확대 특화된 콘텐츠 개발 홍보 강화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여행업체를 돕기 위해 관광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을 확대하고,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여행업체를 위해 지역 업체 차량을 이용한 경우 보상금 20

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 새로운 광주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여행업체에는 홍보비로 최대 50만원(업체당 1회)을 지원하며, 광주지역 소재 업체에는 20만원을 추가해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광주만의 특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주력한다. 시는 지역협력 여행사와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과 연계한 광주예술관광상품, 광주 체류 및 체험형 관광상품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 관광업체가 광주시 협력

여행사로 선정되면 광주시 관광객 유치 보상금을 중복 지원한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에 선제 대응하고,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차별화한 홍보전에 나선다. 온라인에서는 여행작가, 파워블로그, 유튜브를 활용해 광주 테마 여행상품과 관광코스 취재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리 홍보한다. 오프라인에서는 관광전문 박람회 참가와 광주홍보 부스를 활용해 광주 여행지를 알리고, 남도관광센터 내 광주문화관광 캐릭터 '오매나'의 포토존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인공지능 창업지원 본격 추진

올 84억 투입... 예비 창업자 지원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2021년도 인공지능 특화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사업을 확정·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지능 특화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사업은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

적단지 조성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45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을 하는 것이다.

올해는 84억원을 들여 인공지능 관련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과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글로벌 인공지능(AI) 제품 고도화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해 인

공지능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인공지능 관련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창업 경진대회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AI(시)제품·서비스 제작지원 사업 ▲인공지능 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 해소 컨설팅 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업 대상 컨설팅과 모의IR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281억 들여 15개 지구 농산어촌 개발

생활환경개선·소득기반 확충 등

전남도는 올 한해 281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 개선, 소득기반 확충 등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실시한다.

고흥 봉래·득량·남양권역, 장흥 장재도, 신안 신전, 영광 낙월, 완도 고금·보길·약산·충동, 진도 쉬미, 신안 흑산진라·암태·웅곡·화도 등 15개 지구에 권역단위 거점 개발을, 보성, 장흥, 해남, 신안 등 4개 시·군에서 역량강화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문화·복지 등 지역 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

요한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소득 증대, 지역 경관 개선, 주민 역량 강화에 집중된다. 전남도는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대비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어촌을 구상하고 개발할 계획이다. 방문객이 달라진 어촌을 직접 확인하고 느끼도록 경관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반영한 예비계획을 마련해 3월중 신청할 방침이다.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흥 남양, 완도 고금, 신안 화도 권역은 올해부터 총사업비 185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 다음달 9일까지 연장

전남도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추가 신청 기간을 다음달 9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는 지난 2월 공익수당 신청·접수 기간 내 개인 사정 등으로 못한 농어민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도 자체조사 결과 다른 지역 출타, 병원 입원 등 개인 사정으로 지난 신청기간 중 약 1000여 명의 농어민이 신청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 추가 신청

을 받아 4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 두고, 1년 이상 계속해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수당을 받고 싶은 농어민은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광새마을금고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